

JENESYS2025 팔로우업사업 “한일차세대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 기록

1. 사업개요

【목적】 본 사업에서는 JENESYS 사업참가 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이 프로그램 참가경험을 살려 한일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테마로 토론을 실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 발표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양국의 사회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참가자】 11 월 22 일 JENESYS 사업에 참가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
(일본측 9 명, 한국측 29 명)

1 월 10 일 JENESYS 사업에 참가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
(일본측 8 명, 한국측 5 명)

【일정】

날짜 방문지	내용	참가자의 질문·반응 (참자가 인원 수)
11 월 22 일	「2025 한일차세대회의~넥스트 제네레이션 재해 없는 사회를 위하여」 테마 관련 발표 및 의견교환	한·일 참가자들을 Zoom으로 연결하여, 한·일 공통의 사회 과제 중 하나인 '방재'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습니다. 한·일 참가자가 자국의 재해 및 방재 사례 3 가지를 소개하고, 과거의 재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가자: 38 명)
1 월 10 일	「2025 한일차세대회의~SNS 에 의한 사회문제와 청년들의 미래~」 테마 관련 발표 및 의견교환	한국 측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방일하였으며, 한·일 공통의 과제인 'SNS 에 의한 사회 문제' 및 '한·일 청년들의 미래'를

		<p>주제로, 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 시간에는 서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p> <p>(참가자: 13 명)</p>
--	--	--

2. 기록사진

	
<p>2025년 11월 22일 테마 관련 발표</p>	<p>2026년 1월 10일 테마 관련 발표</p>

3. 참가자 감상 (발췌)

◆ 한국 대학생

일본의 자연재해 방재 대책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고 특히 해저드맵같은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배울만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자리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대학생

방일단에 참여하며 노토반도 지진에 대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전체에 대한 지진과 재해 대책과 현황에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일본 대학생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어,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보다 말이 오가는 것이 더 원활하여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의 비교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에 대해, 당시 국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며 이해할 수 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러한 점들이 현재의 SNS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 일본 대학생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일본에 관한 재해 지식도 깊게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재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일본과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었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한국측의 대책을 듣고 실제로 한국 여행에 갔을 때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또 한국의 참가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차세대회의에는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 한국 대학생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던 회의를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멤버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직접 나누는 과정에서 한일 간 공통의 과제와 서로 다른 시각을 보다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간 한일 가교로서 더욱 한일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사회인

한·일 양측의 발표를 통해 SNS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존 또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 악성 댓글 같은 비방 문제와 같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실감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한국 쪽의 이용 실태나, 동조 압력에 의한 비판의 연쇄라는 일본 쪽의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SNS 를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에 대해 적절히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주최측 감상 (발취)

◆ 일본측 운영단체 (JENESYS 동창조직 Japan Korea Alumni Forum)

금년도 한일차세대회의는 서울의 KJAF 와 부산의 KJAFB 가 각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며, KJAF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KJAFB 는 오프라인 형태로 개최하여, 개최의 형식에 있어서도 각자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JAF 는 '방재'라는 테마로 지진이나 수해, 인적 재해 등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최근 환경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양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테마로,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KJAFB 는 일본에 와서 직접 교류하게 되어, 서로의 분위기나 표정을 보며 대화함으로써 대면 교류의 장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 월부터는 1 월의 회의를 앞두고 교류회를 겸한 온라인 회의를 거듭하며, '저출산·고령화', '입시·취업전쟁'의 토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월 회의에서는 'SNS 에 의한 사회문제'와, '청년들의 지금부터'라는 테마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과제 모두 양국 청년에 초점을 맞춰,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맞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교정상화 60 주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입니다만, 지금부터의 60 년, 100 년은

우리들이 만들어 간다는 의식을 다시금 갖고, 앞으로도 양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가교가 되어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측 운영단체 (JENESYS 동창조직 Korea Japan Alumni Forum BUSAN)

이번 차세대회의는 정말 운이 좋게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분위기, 상대방의 표정, 심지어 몇 초간 흐르는 정적까지 그 모든 것을 캐치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생각은 이번 대면회의를 통해 더욱 확고히 굳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SNS 사용의 실태, 그리고 양국 청년의 미래에 대해 정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한 테마당 질문 타임만 최소 30 분은 넘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면 회의는 그 호기심을 풀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차세대회의의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가 성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일한문화교류기금, JKAF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취), 보도자료 등

 <p>jkaf_official こんにちは！JKAFです。 11月22日(土)、5回目となる日韓次世代会議を開催しました。 今回は「防災」をテーマに、3チームに分かれて発表を行いました。 日本側:地震/水害/気象</p>	 <p>02 한일 청년들의 미래</p> <p>다들 주제는 한일 청년들의 미래로, 워낙에 치열한 쟁론적인 분위기를 풍겼다고 눈이 아파왔습니다. 각국의 복지 제도를 공유하며 좋은 정책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p> <p>jkaf_official님의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kjafb_2nd KJAFB 2기의 마지막 활동으로, 방일 및 JKAF와의 대면 차세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의 문화와 사회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공통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짧지만 깊었던 만남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기대합니다.</p>
<p>2025년 11월 24일(Instagram)</p> <p>이번에는 '방재'를 테마로 3 팀으로 나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례와 제언을 서로 나누며 서로 식견을 깊게 하였고, 질의응답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오갔습니다.</p> <p>이번 학습과 경험이, 양국 공통의 방재 과제에 대해 새로운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p>	<p>2025년 1월 24일 (Instagram)</p> <p>KJAFB 2기의 마지막 활동으로, 방일 및 JKAF와의 대면 차세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의 문화와 사회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공통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짧지만 깊었던 만남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기대합니다.</p>

6. 본회의에서의 발표 내용 (발취)



· 11월 22일에 실시한 '2025 한일차세대회의~빅스트 제네레이션 재해 없는 사회를 위하여'에서 한국측은 '지진', '태풍·홍수에 의한 수해', '인재와 안전불감증'을, 일본측은 '지진', '홍수·내수범람·폭풍해일에 의한 수해', '기상재해'를 테마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각자가 재해의 사례를 비롯하여, 재해 발생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진과 관련하여, 일본에는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어떠한지", "일본에서는 재난안전지도 외에도, 지명에 계곡이나 해변의 의미가 붙은 곳은 수해의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한국의 서울은 지하철 노선이 많은데, 호우 시 피해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재난안전지도가 익숙하지 않은데, 지진이나 홍수 등에 따라 따로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한 장의 재난안전지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 1월 10일에 실시한 '2025 한일차세대회의~SNS에 의한 사회문제와 청년들의 미래'에서는, 'SNS에 의한 사회문제', '청년들의 미래'를 테마로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이 각각 문제점과 해결책을 발표하였습니다.

‘SNS에 의한 사회문제’ 발표

●한국측: SNS 이용률이 높은 배경으로 쇼츠 영상 및 메신저 기능이 합쳐진 복합 플랫폼화,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의 관심에 맞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나, 스마트폰 의존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 댓글·채팅을 통한 사이버 폭력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SNS 이용 시간의 관리, 비판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 육성, 학교 또는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중요하며, SNS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절히 통제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측: 민폐 동영상, 악성 댓글에 의한 비방, 가짜 뉴스, 개인정보 유출 등이 SNS 상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익명성에 따라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기 쉬운 점,

비판이 연달아 이어져 집단화·과격화되기 쉬운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 부담이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해·정치·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허위 정보의 확산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도 과제로서 제시되어, 대책으로는 법률의 정비나 플랫폼 대응 강화를 비롯해, 초등학교 단계부터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실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의 미래’ 발표

●한국측: 한·일이 함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강점인 치밀함과 안정성과, 한국의 장점인 속도감과 도전정신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일 공통의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한·일의 기술과 시스템이 융합된 네이버와 이즈모시의 제휴 등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이나 공동 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본측: 이직 희망자 증가와 원격 근무 확대, 고령 취업 및 육아 휴직 확대 등, 근무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일 공통의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근무 형태나 다양한 근무 제도의 활용, 가치관 및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평생학습과 투잡을 통한 수입원의 다변화라는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생을 축으로 하여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자세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